

후백제 중심 대신라·고려 관계 조명

국립전주박물관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발간... 6개 논고 실려

후백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단행본이 발간됐다. 국립전주박물관은 2일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2014년 10월 진행한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학술심포지엄의 발표논고를 새롭게 정리해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단행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단행본에는 전주를 왕도로 37년간(900년~936년) 강력한 나라를 이뤘던 후백제 역사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초 논문과 6개의 논고가 실렸다.

후백제 연구의 권위자인 충북대 신호철 교수는 '후백제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기초논문을 통해 전통시대 후백제에 대한 인식, 근·현대 후백제사 연구의 성과, 그리고 향후과제를 밝히고 있다.

또한 충남대 김수태 교수는 '후백제의 대신라·고려 관계' 논고를 통해 지금까

지 일반적이었던 신라·고려 중심의 후백제 대외관계 서술을 비판하고 후백제 중심으로 대신라, 대고려 관계를 다뤘다.

더불어 전남대 변동명 교수는 후백제의 해상활동 중심 시기에 따른 후백제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해외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까지 이해할 수 있는 '후백제의 해상활동과 대외관계'를, 군산대 박장근 교수는 백두대간·금남호남정맥·금남정맥의 산줄기에 남아 있는 후백제 외곽 방어체계의 복원을 시도한 '후백제 왕궁과 외곽 방어체계'를 수록했다.

이외에도 순천대 이동희 학예연구사의 '전남지역의 후백제 유적과 역사적 성격', 문체부 진정환 학예연구사의 '후백제 불교조각의 대외교섭', 유병하 국립전주박물관장의 '공예도성과 견훤도성'을 통해 후백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후백제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유병하 관장은 "이번 단행본은 10세기 초 한반도를 흐르던 후백제의 역동적인 대외관계는 물론 후백제 도성과 왕궁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향후 국립전주박

물관에서는 후백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후백제와 오일' 단행본, 후백제 유적 학술발굴조사보고서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은지기자

전통문화 작가양성 기획전 공모 선정 진정욱씨 첫 전시

전주 전통공예 전국대전 대상 수상... 분청사기 기법 다각 모색

지역 내 유망 작가들을 세계 속 장인으로 키워주기 위한 한국전통문화재단의 작가양성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한국전통문화재단은 2일 지난해 지역 내 전통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개인 작가를 대상으로 '작가 양성 기획전시' 공모사업을 발의 가운데 최종 7개 팀을 선정해 첫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도예가 진정욱(41·사천)씨

도자기 100여점이 2일부터 22일까지 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여진다.

첫 전시의 주인공인 진정욱 도예가는 지난해 '분청 귀얄문 대발'을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에 출품, 영예의 대상(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도자기 공예분야 전통 장인으로써의 명성을 전국에 알린 인물이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 위봉사 '봉강도예'

전통가마에서 20여년째 작품을 구워내고 있는 진 작가는 분청사기에 여러 가지 기법을 모색하고 향상시켜 현대적 트렌드에 맞는 도자 예술의 길을 후학들에게 지도하고 있다.

최재덕 전당 사업본부장은 "이번 기획전시는 지역 내 유망한 작가들을 세계적 장



진정욱



지역 섭은남



캐롤



순응자

전주독립영화관 2월 첫째주 영화 '자객 섭은남' '캐롤' '순응자' 개봉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이 2월 첫째주 상영작으로 '자객 섭은남', '캐롤', '순응자'를 개봉·상영한다.

허우 사오시엔 감독의 신작 '자객 섭은남'은 9세기 초 당나라를 배경으로 부패한 관리를 살해하는 암살자로 키워진 섭은남이 지역 군주이자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암살하려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소설 '소름이 끊'을 원작으로 한 '캐롤'은 두 여인의 운명 같은 풀림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그린 감성 드라마이다.

특히 이 영화는 2015년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2016 골든 글로브 최다 노미네이트, 2015 뉴욕 비평가 협회 선정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을 수상하며 관객들의 기대를 모았다.

2월 주말에만 상영되는 '순응자'는 베르

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걸작으로 제작된 지 40년 만에 국내에서 최초로 극장 개봉을 한다.

영화 '순응자'는 기존 사회 질서에 순응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파시스트가 된 청년 마르첼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theque.jif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은지 기자

설명절 고궁·왕릉 무휴 개관 설날 당일 무료 입장 자유 관람

문화재청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설연휴 기간에도 4대 궁·종묘, 조선왕릉, 현충사관리소 등 유적기관을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설날인 8일에는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를 무료 개방하고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던 종묘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연휴동안 잠시 예약제를 폐지한다.

무휴·무료 개방과 함께 문화재청은 설맞이 문화행사도 마련해 경복궁 함화당과 집경당에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온돌을 체험하면서 세배를 드리는 '온돌방 체험 및 세배 드리기 행사'가 열린다.

이와 함께 덕수궁과 영릉과 현충사, 칠백의총 등에도 뿔놀이와 투호 등 전통 민속 놀이가 준비돼 있어 문화재를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고은지 기자



영화 '삼레'의 한 장면

'삼레' 시네퀘스트 영화제 초청

극영화 경쟁부문에

전주시네마프론티어2015 선정작인 '삼레(감독 이현정)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리는 제26회 시네퀘스트 영화제(Cinequest Film Festival) 경쟁부문인 극영화 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삼레'는 '전북 삼레'라는 장소를 무대로 그 곳에 빠져드는 남자와 그곳을 벗어나려는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시네퀘스트 영화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삼레'를 "정당한 밤공기 속에서 공명하는 차분한 선율과 같은 작품"이라며 "삼레 이현정 감독은 한국의 신화와 페미니즘을 주제로 작업을 계속해온 감독이다"고 소개했다.

한편 올해로 26회를 맞는 시네퀘스트 영화제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 호세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로 '삼레'는 총 5개의 경쟁부문 중 메인 경쟁인 장편 극영화 경쟁에 진출해 드라마 부문 최우수작품상(Best Feature Film: Drama)을 두고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고은지 기자



군산고 학생들 '군산문학' 펴내

소설 6편속에 군산의 지역 문화 녹여내

군산고 재학생들이 군산지역을 이야기 속 배경으로 다양한 소설을 집필하고 한데 엮어 책을 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군산문학'이라는 제목이 달린 이 책은 군산 지역 둘째 길 소개 및 군산의 주요 장소와 역사적 사건을 소설 6편 속의 시·공간적 배경으로 구성한 글이 실렸다.

송일섭 교장은 "우리 군산고는 학생의 특기와 소질 향상을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해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 학생동아리 등용문의 '군산문학' 발간사업이다"며 "이 사업은 2015학년도 전북 학생 인문학 쓰기 동아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책을 기획하고 6개월에 걸쳐 집필해 이렇게 멋진 창작물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고은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2월 3일>

▷쥐띠

46년생: 일의 능률이 좋을 때이니 미루어 왔던 일을 하기에 최적.
80년생: 노력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운.
72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주의하라. 구설수.
84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먼저 커피라도 다녀와.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나니 경계하라.
64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성가신 일이 발생하니 적당한 거리유지.
76년생: 뒷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대하니 부덕을 흔쾌히 풀어줄 것.
88년생: 이성만이 좋아지고 화해는 도모하기에도 좋은 운이다.

▷원숭이띠

69년생: 다른 사람의 일이 나서지 말라라.
81년생: 뒷사람에게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운이니 적극적인 행동이 타인에게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알고 행동하라.
80년생: 자신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겸손은 필수다.
82년생: 손재수 사람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소띠

46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에 신경써야할 오해할 수 있음.
61년생: 매사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니 잠시 쉬어짐이 좋겠다.
73년생: 후에 절실한 디가를 것이니 쉬지 말고 노력하라.
85년생: 동기과 함께하면 힘든일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뱀띠

53년생: 배를 면 덕이 쌓이니 후에 반드시 풀리게 될 것이다.
65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운이다.
77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혼자 해결해나가기라 한다.
89년생: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맺을 수 있다.

▷닭띠

57년생: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일찍 움직여야.
69년생: 작은 성과를 얻으려는 자에게는 좋은 운이니 큰 결과 받으려는 자에게는 힘든 운이다.
81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
93년생: 시비수가 따르니 일시적인 것이다.

▷호랑이띠

50년생: 남성은 여성의 조건을 구하라. 밑속에 들어 있다.
62년생: 타인의 이익을 너무 의심하지 마라.
74년생: 손재수와 실물수가 따르는 운.
86년생: 이성과 함께 진행하면 사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어 공과 사를 구별하라.

▷말띠

54년생: 금전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66년생: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뒷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8년생: 겸허하게 대처하라. 이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90년생: 정신이 두땀해지 않으니 매사에 집중력을 잃지 마라.

▷개띠

46년생: 손윗사람에게 신경써야 하는 운이다.
58년생: 글썽이 상상되는 운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70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니 먼저 손을 내밀어라.
82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
94년생: 처음에는 서로 뜻이 맞지만 기본값이 생기자 후련에는 풀리게 된다.

▷토끼띠

61년생: 불리거나 평안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73년생: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운이니 기운을 진정하라.
85년생: 처리하는 일이 잘 되다가 중간에 막히게 되니 대비하라.
97년생: 다른 사람과 타협하면서 하는 일의 방향을 잃지 마라.

▷양띠

65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77년생: 문서에 필성이 비추니 계획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
89년생: 건강에 대해 신경써라.
91년생: 시소한 일에도 매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돼지띠

47년생: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59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건강관리(신경쓰라)
71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발생하니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마라.
83년생: 식욕이 따르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하라.